

반등 국면에도 동반 성장 아니다… 산업·기업별 ‘명암’ 뚜렷

韓 경제 ‘성과 양극화’

저성장 고착 속 기업 격차 확대
반도체·AI 등 신산업만 선전
전통 제조·유통은 부진 지속
거시보다 기업전략 성패 좌우

2026년 한국 경제는 장기 침체 국면의 끝자락에서 벗어나며 완만한 회복 흐름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회복은 과거처럼 산업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국면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저성장이 구조화된 환경 속에서 산업 간, 나아가 같은 산업 내 기업 간 성과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화와 재확산을 반복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수출 중심의 고성장 국면은 이미 지나갔고, 내수 회복 역시 산업별·기업별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2026년은 ‘얼마나 성장하느냐’보다 ‘누가 성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의 중심에는 반도체와 AI를 축으로 한 IT 신산업이 있다.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데이터센터 증설은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공정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산업·기업 간 격차가 뚜렷해지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하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주요 산업 가운데 수출·내수·생산이 모두 증가하는 몇 안 되는 분야로 꼽힌다. 바이오헬스 산업 역시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개발(CDMO)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 산업 안에서도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 실적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IT 신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기업 간 격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전망이다. 정보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 가전 등 ICT 관련 산업은 IT 경기 회복과 교체 수요에 힘입어 점진적인 개선이 예상되지만,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와 해외 생산 확대는 국내 기업 간 성과 차이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선업은 수주잔량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거저효과로 인

해 단기 지표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통 제조업의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철강과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중국발 공급 과잉, 자급률 상승 등으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탄소 규제 강화와 비용 부담까지 겹치며 생산 여건은 한층 악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고부가·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전환 속도와 경쟁력에 따라 성과는 크게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산업 역시 구조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국의 자동차 품목 관세 확정으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고관세 부담과 전기차 수요 둔화, 주요 차종 노후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이차전지 산업은 구조적 성장 산업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해외 현지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내수와 수출, 생산 지표가 엇갈리는 흐름이 예상된다. 기업별 대응 속도에 따라 성과 차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산업 전반의 흐름 속에서 유통·식품업계 역시 ‘선별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통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밝은 곳은 백화점이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핵심 상권의 상위 점포들은 명품 소비와 체험형 콘텐츠 강화,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바탕으로 ‘경험형

공간’으로 재정의되며 오프라인 유통의 중심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부 점포에 국한된 현상으로, 지방이나 경쟁력이 약한 점포들은 여전히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출점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선별과 정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형마트는 비식품 경쟁력을 사실상 상실한 대신 식품 중심 채널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선식품과 델리, 가성비 중심의 PB 상품에 집중하며 매장 구조 역시 그로서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2026년에도 긴장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계 플랫폼의 초저가 공세가 일상화되면서 상위 사업자 중심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하위 플랫폼은 선택과 집중 또는 추가 구조조정 압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대기업, AI 사업 내재화 가속 체질 전환 속 노동개혁 관전

AI 전환 본격화

삼성, AI·반도체 중심 450조 집행
SK, 용인 클러스터 180조 투입
현대차, AI·SDV·전동화에 125조
LG, AI·소부장에 100조 투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의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던 2023~2024년을 지나, 올해는 AI를 실제 사업에 내재화하고 수익 창출로 연결하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고환율에 따른 비용 부담과 글로벌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AI를 단순한 신기술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삼아 근본적인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서는데 사활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국내 4대 그룹은 최근 향후 5년간 국내에 800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잇달아 내놓았다. 재계의 투자 확대 흐름에서 중심에 놓은 분야는 단연 AI다. 기업들은 반도체와 제조, 모빌리티 등 핵심 사업 전반에 AI를 결합해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등에 총 450조원을 투입한다. 해당 투

자는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 아닌 지방에 첨단 산업·AI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지난 11월 인수한 플렉트그룹의 한국 생산라인을 건립해 AI데이터센터 시장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SK는 2028년까지 18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진행한다. 이중 상당 부분은 경기 용인에 조성 중인 415만㎡ 규모 부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입된다. 업계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관련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SK의 누적 투자 규모가 장기적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따른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25조 2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투입된 89조 1000억원의 투자액 대비 36조 1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LG도 향후 5년간 1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 이 중 60%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을 국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40조원은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모델 ‘엑사원’ R&D, LG전자의 AI 가전 및 스마트폰 기술 개발 등 AI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2026년 대한민국, LS와 함께 전력(電力) 질주!

전기가 경쟁력인 시대,
LS는 100년 가까이 전기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왔습니다
전선의 핵심 소재인 구리(Copper),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초전도 케이블,
그리고 전력기기 및 솔루션까지
발전·송전·배전 전 분야에 LS의 기술이 있습니다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 그 중심에 LS가 있습니다